

새 세기 미제의 아시아태평양지역지배책동의 위험성

김 평 립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주권국가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간섭과 군사적침략책동으로 하여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엄중한 위험이 조성되고있으며 특히 조선반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은 항시적인 긴장이 떠도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고있습니다.》

미제는 새 세기에 들어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지배하는것을 세계제패전략수행의 첫째가는 목표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미제는 저들의 《아시아복귀전략》과 《아시아재균형전략》에 따라 이 지역에 방대한 무력을 집결하고 주권국가들의 내정에 로골적으로 간섭하고있으며 아시아미싸일방위체제수립을 추진하면서 침략전쟁연습들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미제의 아시아태평양지역지배책동으로 하여 오늘 조선반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은 항시적인 긴장이 떠도는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고있다.

새 세기 미제의 아시아태평양지역지배책동의 위험성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책동이라는데 있다.

랭전종식후 세계제패를 위한 전략적중심을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옮긴 미제는 남조선강점을 영구화하면서 동시에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는것을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로 내세웠다.

미제는 우리 공화국이 사회주의보루로 되고있을뿐아니라 세계적판도에서 사회주의의 재생운동을 추동하는 중심으로 되고있는데서도 커다란 위협을 느끼고있다.

미제는 우리 공화국을 저들의 세계제패전략수행의 암초로 여기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무분별한 침략책동에 매달리고있으며 어떻게 하나 고립압살해보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고있다.

새 세기에 기어이 전조선반도를 타고앞으며 아시아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자는것이 미제의 야망이다. 이러한 야망으로부터 미제는 일본과 남조선을 침략적인 대아시아태평양전략실현의 중요거점으로 전환시켜 종속적인 미국-일본, 미국-남조선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하며 3각군사동맹을 조작하여 침략도구로 써먹으려 하고있다.

미제의 무력증강책동에 의하여 오늘 이 지역에는 미항공모함 11척중 6척이 전개되고 560개의 군사기지가 배치되었으며 그밖에 각종 함선 200여척, 핵무기 6 500여개가 전개되어있다. 태평양지역에 배치된 미공군무력은 《유사시》 미국본토에서 증파되는 공군무력과 함께 우리 공화국에 대한 공중기습타격임무를 지니고있다.

침략적인 대조선전략수행에서 군사적방법을 중시하고있는 미제는 이미 북침전쟁계획들을 여러차례 수정, 보충해왔으며 오늘에 와서는 그것을 완성해놓았다. 미제는 조선반도 《유사시》 미국본토 등으로부터 기동타격무력을 투입하고 남조선에 있는 침략무력과 협동밀에 조선전쟁을 치르려 하고있으며 저들은 피해를 최대한 적게 입으면서 《적》을 효과적으로 소멸하기 위한 《원거리공격전략》을 실천에 옮기려 하고있다.

미제는 불의의 선제타격으로 우리 나라의 군사작전능력을 무력하게 만들고 일본주둔 미군과 괌도, 하와이 등 태평양지역과 미국본토로부터 투입되는 신속기동타격무력을 비롯한 미중원군, 남조선강점 미군, 남조선피뢰군으로 제2조선전쟁을 속전속결하려 하고있다.

이러한 침략적인 목적과 타산밑에 미제는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서 각이한 명칭을 띤 북침합동군사연습들을 련이어 벌려놓고있다. 미제는 서태평양상에서 해마다 1 800회가 넘는 각종 군사연습을 벌리고있다. 미제가 2007년까지 남조선에서 감행한 각종 전쟁연습들은 공개된것만 하여도 1만 3 700여차례나 되며 그가운데서 대표적인 남조선미국 합동군사연습은 900여차례, 미군이 단독적으로 벌린 군종, 병종별전쟁연습은 2 400여차례나 된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2008년에 31차, 2009년에 37차, 2010년에 50차의 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였다. 특히 미제가 미군과 남조선피뢰군, 영국, 오스트랄리아를 비롯한 추종국가무력들과 지상과 공중, 해상타격수단들을 대량 동원하여 2013년 3월부터 4월까지 감행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핵전쟁연습으로서 최절정에 달하였다.

무력충돌로 치닫던 2015년 8월사태 역시 미제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핵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조작한 엄중한 군사적도발책동의 일환이었다.

미제의 발광적인 무력증강과 도발책동에 의하여 오늘 조선반도에서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새 세기 미제의 아시아태평양지역지배책동의 위험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일본반동들의 해외팽창야망을 증대시키는 책동이라는데 있다.

미제는 일본의 해외팽창야망을 리용하여 일본반동들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지배실현의 돌격대로 내세우려고 책동하고있다. 한편 일본반동들은 미제의 아시아태평양중시정책에 적극 편승하면서 저들의 해외팽창야망을 기어이 실현하려고 책동하고있다.

미일반동들의 이러한 전략적리해관계의 공통성은 미일동맹관계를 더욱 밀접히 하고 일본반동들의 해외팽창야망을 더욱 증대시키고있다.

아베는 2013년 2월 미국을 행각하여 오바마와 첫 수뇌자회담을 벌리고 일미동맹을 강화해나간다는것을 확인하였다. 오바마는 2014년 4월 일본을 행각하여 아베와 회담하면서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하고 자위대를 강화하며 미군과의 련대를 심화시키려는 아베의 노력을 찬양하였으며 아베는 미국의 《아시아재균형》전략을 지지, 환영하고 미국과 함께 《지역의 평화와 안정보장에서 주도적역할을 담당》할 견해를 밝혔다.

미일동맹관계는 2015년 아베의 미국행각을 계기로 제2차 세계대전이래 최고로 강화되었다. 아베는 2015년 4월 미국을 행각하여 오바마와 회담하고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였으며 일미공동성명과 《핵무기전과방지구약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아베의 미국행각기간인 4월 27일 미국과 일본은 뉴욕에서 외교 및 안보담당 각료들이 참가한 안전보장협의위원회를 열고 새로운 일미방위협력지침을 새로 개정하였다.

원래 미일방위협력지침은 《유사시》 미군과 일본《자위대》의 구체적인 작전, 정보, 후방지원협력과 역할분담을 명시한 문서로서 1978년 《쏘련의 침공》을 가상하여 처음으로 체결되고 1997년에 우리 공화국의 탄도미싸일과 조선반도 《유사시》 등에 대처한다는 구실밑에 개정되었다. 2015년에 또다시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도 우리 공화국의 탄도미싸일발사를 비롯한 군사적《위협》에 대처하는것을 주되는 명분으로 내세웠다.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따라 일본《자위대》의 해외군사작전범위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기존지침의 《주변사태》라는 지리적개념이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잠재적위협이 되는 《사태》로 수정되고 일본《자위대》와 미군의 공동군사작전범위가 전세계에 넓혀졌다.

미제는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을 통하여 사실상 일본반동들의 《평화헌법》수정과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용인하고 더욱 부추겼으며 미일군사협력의 기본전제와 관련하여 기존지침에 있던 《헌법상 제한된 범위안에서》라는 표현을 빼고 새로 《량국의 활동은 분쟁의 평화적해결 및 주권평등에 관한 유엔헌장 및 국제법에 따라 진행된다.》는 문구를 새 지침에 박아넣었다.

결국 일본의 《평화헌법》이 더욱 유명무실해졌으며 일본반동들은 헌법개정과 군사대국화책동에 박차를 가할수 있게 되었다.

새 세기 미제의 아시아태평양지역지배책동의 위험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새로운 군비경쟁을 초래하는 책동이라는데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는 21세기에 미국에 도전해나올수 있는 잠재적인 경쟁적수들이 밀집되어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공인된 핵보유국중 5개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발언권을 높이고있는 브릭스나라 5개중 3개, 20개국그루빠성원국들의 절반이 아시아태평양지역나라들이다.

이로부터 미국은 새 세기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무력증강을 결정하고 군사적침투를 강화하고있다.

미제는 새 세기에 들어와 군사빨력을 조작확대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안보에서 우세를 차지하는데 열을 올리고있으며 아시아중시전략에 따라 유럽과 중동 등지로부터 동아시아에로 미군무력을 옮겨 집중배치하고있다.

새 세기 아시아에로 국방정책의 전략적중심을 이전함에 따라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 역시 유럽으로부터 아시아에로 방향전환하였다.

미제는 2012년 4월 아시아미싸일방위체계수립계획을 공식발표하였다.

미제는 2013년 4월 하순 《PAC-3》을 일본 오키나와현내에 처음으로 상시배비하였으며 2014년 12월 일본서부에 추가배비된 두번째 X밴드레이다의 가동을 시작하였다. 2012년 6월 중순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은 피뢰군과 남조선강점 미군이 독자적으로 창설한 미싸일방위체계를 정합하는 식으로 미싸일방위체계와 관련한 협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대만, 인디아, 특히 오스트랄리아도 저들의 미싸일방위체계에 끌어들이므로써 아시아미싸일방위체계구축을 다그치고있다.

미제는 2019년까지 X밴드레이다와 48개의 요격미싸일로 구성된 고고도미싸일방위체인 《싸드》 7개 포대를 실전배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있다. 2013년 괌도에 알파포대를 처음으로 배치한데 이어 2015년말까지 미국본토에 3개 포대의 실전배치를 완료하였다. 특히 추가로 생산중인 3~4개 포대를 앞으로 남조선과 일본, 아랍추장국련방 등에 배치하려고 하고있으며 2016년 7월에는 《싸드》의 남조선배치를 정식 결정하였다.

미제는 아시아중시전략에 따라 미일공동통합연습, 태평양지역에서 벌어지는 세계최대 규모의 연습인 《림팩》, 《전파안보발기》다국적해상군사연습, 동남아시아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코브라 폴드》합동군사연습 등 전쟁연습소동을 항시적으로 벌리고있다.

미제의 아시아태평양지역지배권확대책동에 중국과 로씨야가 강력히 반발하고있다.

중국은 미제의 아시아중시전략에 맞서 전방위적인 국가안전전략을 본격적으로 작성하고있다. 중국은 미국전역을 타격할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싸일 《동풍-41》을 거듭 시험발사하여 실전배치할 준비를 다그쳤으며 대양해군을 건설할 목표밑에 첫 항공모함 《료녕》호를 취역시키고 국가안전위원회를 내왔다.

로씨야는 미제의 미싸일방위체계를 뚫고 공격할수 있는 신형전략무기개발과 배비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병력과 선진적인 무장장비들을 원동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치하고있으며 이와 동시에 중앙아시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전반으로 군사적지위를 확대하고있다. 2010년 7월 대통령의 정령에 따라 로씨야군의 본래 6개 군관구가 4개로 줄어들고 《서부》, 《남부》, 《중앙》, 《동부》 4개의 전략사령부가 조직되었다.

한편 중국과 로씨야는 미제의 아시아중시전략에 대처하기 위해 상해협조기구를 더욱 확대강화하고있다.

우리는 새 세기 미제의 아시아태평양지역지배책동의 위험성을 똑똑히 알고 단호히 짓부셔버림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따라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며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적극 기여하여야 할것이다.